

크레이그 키너 박사, 사도행전, 강의 14, 사도행전 12-14장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14회기, 사도행전 12장과 13장입니다.

루크는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이 뛰어납니다.

그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바울에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이에 베드로와 바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전환의 시간에 그는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11장과 30절에서 예루살렘을 위한 기근 구호품을 사울과 바나바에게 보냅니다. 글썄, 누가는 12장과 25절에서 이 기근 구호품을 전달한 후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다시 픽업할 것입니다..

그 동안 그의 마지막 초점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 있지만, 이 중 일부는 가이사랴에서 발생합니다.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구원에 대해 배웁니다. 이제 박해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립바 1세는 헤롯 대왕 이후 최초의 유대인 왕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와 친구였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1년부터 44년까지이며 그가 유대에서 왕이 되는 것을 허락받은 때입니다.

그는 헤로디아의 형제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그곳의 헤롯에 관해 읽은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 사람은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는 형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음, 헤로디아의 친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는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기 전에 가이우스 칼리굴라와 파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 이후 최초의 공식적인 유대인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할머니 마리암네(Mariamne)는 하스몬 왕조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민족적으로 이두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은 행복했습니다. 이것은 하스모니안 가문인 마카베오 가문의 피를 혈관에 물려받은 최초의 유대인 왕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기쁘게 하기를 매우 열망했는데, 그로 인해 때때로 로마에서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돈을 낭비했고 결국 심각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사실 여기 본문에 그가 유대 사람들, 특히 가장 보수적인 종교적 유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있을 때 자신의 로마인 정체성을 강조했던 것처럼 자신의 유대적 정체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인들이 하는 일을 하세요. 글썄, 유대에 있을 때에는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매우 친바리새주의자였으며 성전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우리는 요세푸스에게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체포합니다.

야곱은 실제로 말하는 그대로이지만 신약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항상 야곱이 야고보를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복음 9장 9절에서 세례 요한이 목을 베었던 것처럼 그를 참수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도끼보다는 검을 주로 사용하였다. 참수는 더 자비로운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특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서 사용의 권세, 글라디우스, 검의 권세, 삶과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유대 총독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통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유대 민족주의가 성장하는 시기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극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임스는 참수당했습니다. 이제 피터는 체포됩니다. 글썄, 그것은 인도하는 사도 중 두 명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2장 3절. 이것은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읽는 사람은 누가복음 1권, 즉 누가복음 22장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처형 당시를 떠올릴 것입니다. 아그리파는 때때로 공공 오락을 위해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의 방식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요세푸스에게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중 오락이었습니다. 페스티벌에서 한다는 것은 경고의 역할도 했지만, 단지 경고일 뿐만 아니라 오락을 감상할 사람이 가장 많았던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 밖의 이방인들에게 관대하게 기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유대인 신민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다수의 변덕에 부응했습니다. 가이사랴의 그의 군사들, 그에게 대답해야 할 가이사랴의 그의 이방인 군사들, 그들은 로마의 군인들이면서도 그를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요세푸스에게서도 그것을 볼 수 있지만 유대인 유대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12장 4절, 위치. 아그리파 1세는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이곳은 아마도 베드로가 구금된 후 베드로가 투옥되었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상부 도시 근처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군인이 가장 많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로마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가 이 기간 동안 유대인 군인들만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어쩌면 레위인 성전 경비병이 아니라 그의 유대인 군인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세푸스에게서 읽은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세푸스에게서 읽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미 유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인 로마 군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교대 근무에는 각각 4명의 군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 네 명이 있을 것입니다. 12:6에서는 각 쇠사슬로 베드로를 군인 한 명에게 묶었고, 경비병 두 명이 밖에 서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꽤 안전할 겁니다.

꽤 안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12:8-11에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신을 신고 걸옷을 신이라고 말합니다. 교도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옷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체포된 것이 무엇이든, 누군가가 당신에게 추가로 다른 것을 가져오지 않는 한, 그들은 종종 뇌물을 요구하는 경비원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바깥 망토는 담요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망토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입으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입었습니다.

그의 사슬이 떨어졌습니다. 문은 자동으로 열린다고 그리스 사람은 말합니다. 그 언어는 다른 많은 고대 작품에서도 사용됩니다.

에우리피데스, 그가 디오니소스가 그의 추종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사슬을 풀고 잠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열리는 문에 대한 이러한 언어는 호메로스에게서 요세푸스까지 전해졌습니다.

고대문학 곳곳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본 것, 즉 당신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제임스가 죽었습니다.

피터는 살아 남았습니다. 우리는 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항상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언급된 곳은 사도행전 15장에서처럼 이방인 선교를 지원하는 이러한 전환을 도운 것으로 다시 언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그리품은 산헤드린보다 더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경비병들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경비병들보다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는 자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도 제임스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피터는 어디에 있나요? 아마도 그는 위쪽 도시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이는 아마도 로마 군대가 있던 성전 산에 있던 안토니아 요새를 암시합니다. 하지만 안토니아 요새에서 위쪽 도시로 향하는 직선 경로였다.

당신이 택한 길이라면 하나의 주요 도로를 택할 수 있고, 아치를 건너기만 하면 이미 위쪽 도시에 있을 것입니다. 그가 위쪽 도시로 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는 집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입니다. 외부 게이트가 있습니다.

포터 역할을 하는 하인이 있습니다. 그 하인은 단순한 문지기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그다지 부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문으로 가야 해요.

그녀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여전히 어떤 수단이 있는 집입니다. 사도행전 밖에서 우리는 마가와 바나바가 친척이었다는 것을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서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이 집이 꽤 잘사는 집이고 확실히 평균보다 더 나은 집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4장 36절을 보면 바나바가 레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레위인 가족일 수 있다.

그들은 심지어 엘리트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떤 종류의 연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위쪽 성에는 부유한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여리고에도 몇몇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이 집에서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이 클수록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기도회를 하기에 자연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설립된 후 처음 3세기 동안 특별한 건물보다는 집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 5절과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에 대해 읽습니다. 일부 가난한 회당은 회당 건물을 갖기 전에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대형교회는 공공장소로 여겨졌던 성전에서 모일 수 있었다.

그러나 박해가 극심한 이 시기에는 교회가 지하에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 집회하는 것보다 집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집에 대해 우리가 또 무엇을 알고 있나요? 음, Mary는 John Mark의 어머니입니다. 마가는 라틴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마도 로마에 더 호의적인 가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한 리버틴 회당의 회원이었다는 것이 반드시 로마 시민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전형적인 유대 민족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마도 다시 부유한 예루살렘 사람들과 연결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흔한 여성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와 사도행전 전반부에 이 말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찾은 이름은 해당 위치에 적합합니다. 이것은 후기 교회가 만들어서 유대나 예루살렘에 다시 투영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인의 이름은 로다입니다. Rhoda는 장미를 의미하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분야에서 종종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당시 하인들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가사 종들은 실제로 들판에서 일하는 자유인보다 더 나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나은 삶을 살았고, 사회적 이동성이 더 많았으며,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보다 자유로워지고 사회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여성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 노예, 때로는 이방 세계의 소년들도 성희롱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도 하인을 성희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지되어야만 했다는 사실은 노예를 소유한 일부 사람들에게 그러한 유혹이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이곳은 요한 마크의 어머니 집입니다. 이쪽은 메리입니다.

따라서 Rhoda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녀는 피터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곳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녀는 가족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예제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화의 일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다의 상황은 아마도 고대 지중해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나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 70~90%는 생계를 유지하는 농부이거나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서 일하는 시골 농부였습니다.

12, 14-16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배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만큼의 믿음이 없을 때에도 그분은 어쨌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마도 그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을 주목하십시오. 12장 5절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실제로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놀랐다. 로다가 문으로 온다.

피터가 노크해요. 그녀는 문으로 온다. 그녀는 피터인 것을 본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 신나서 피터가 아직 문 앞에 있는 동안 다시 달려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의 무덤에 있던 여인들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의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내 말은, 먼저 그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말하는데, 무덤에 있던 여자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의 유령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의 천사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의인이 죽은 후에 천사와 같이 된다는 유명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피터였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비웃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믿음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도 처음에는 천사가 자신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밖으로 나가서 한 거리에 내려와서 '아,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깨닫기 전까지는 자신이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당시에 그런 일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깨어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이 피터는 대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제, 아마도 그 동네에 다른 포터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예루살렘 위쪽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누군가가 밖을 내다보며 누가 문을 두드리는지 볼 수 있습니다. 좀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돌보십니다. 그런데 피터는 그들이 마침내 자신을 들여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덤의 여인들이 처음에 그것을 믿었던 것처럼, 로다는 처음에 그것을 정말로 믿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12장과 17절. 야고보(James), 문자 그대로 야곱.

그것은 매우 흔한 유대인 이름이었습니다. 12장 2절에 목이 잘린 야고보가 아닙니다. 머리가 다시 자랐다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 야고보는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과 13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의 이상적인 청중이 이미 야고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방법으로 소개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7장과 갈라디아서 2.9장. 이 사람은 예수님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순교당하자 예루살렘 주민들은 항의했습니다. 특히 율법에 가장 경건한 사람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야고보의 처형에 항의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 피터, 피터 때문에 화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그는 가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을 수도 있겠지만 제임스는 아그리파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제임스가 처형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미 매우 보수적인 예루살렘 문화에 공감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그의 양육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12장 18절과 19절. 아그립바는 너무나 오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려고 했으나 예배를 받아들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고문을 받고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경비원을 조사합니다.

나는 노예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노예는 로마법과 그리스 관습에도 속해 있었고 종종 고문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조사한 다음 처형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명의 경비원 외에는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태만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형의 경우, 경비병이었던 로마 군인들이 죄수를 탈출하게 놔두면 과실로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것이 공모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경비병들 모두가 협력한 게 틀림없었는데, 그 중 두 사람이 베드로에게 묶여 있었고, 사슬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밖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하시고 그들이 베드로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시지 않는 한 베드로는 그들이 보지 않고 지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갈 설명이 아닙니다.

글쎄요, 그가 경비병을 처형했다는 것은 16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당시 근무 중이던 4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의 오만함을 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실 것입니다. 16장 27절을 보면 빌립보 간수가 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7장 42절에 보면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위험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두 경우 모두 처형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헤롯 아그립바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경비원을 비난하고 처형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일부 회복합니다. 20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신이 그에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두로와 시돈에서 식량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두로의 일부는 본토에 있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섬에 재건된 섬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했던 경사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먹을 만큼 충분한 식량을 재배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식량을 부분적으로 유대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는 그 중 일부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와서 그에게 아주 좋은 말을 해야 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일이 실제로 가이사라 극장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로마의 수도 유대가 있던 이 시점에서 가이사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그리파는 21절에서처럼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누가는 그의 왕의 예복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화려함을 강조한 요세푸스(Josephus)에 의해서도 언급되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아그리파의 자기 전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반유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요세푸스는 가이사라 극장에서 이 특별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 극장은 그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극장의 기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모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아마도 황제의 생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아그리파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고 그의 아침꾼들이 그를 그리스 동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으로 칭찬했다고 말합니다.

글쎄, 그는 Gaius Caligula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Gaius Caligula가 이제 죽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황제였지만, 가이우스 칼리굴라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형상을 세우고 신 숭배를 요구한 사람, 즉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는 그것을 단념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아그리파는 분명히 그의 힘이 그의 머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인 것처럼 숭배받고 칭찬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좋아하시며 이들은 이방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에 있을 때 유명한 장군이었으며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칭송했던 게르마니쿠스조차도 그러한 칭찬을 무시했습니다. 황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칭찬을 회피해야 했습니다. 사실 황제는 누군가가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자신이 즉시 쓰러져 5일간의 복통 끝에 8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54세의 나이로 말입니다. 장 질환과 벌레로 인한 사망은 특히 끔찍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폭군에게는 적절한 죽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죽은 폭군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와 누가는 둘 다 아그립바의 끔찍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자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생사의 권세를 행사하며 베드로를 죽이려던 아그립바는 결국 살아남고, 아그리파는 결국 죽게 된다. 정말로 삶과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분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섬기다가 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그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그가 책임자라는 것을 압니다. 12장 25절부터 13장 3절까지 안디옥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이것은 유대교에서는 일반적인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자들은 유대인 신앙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실제로 선교사들을 파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소의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르심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나바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이 바로 교회에서 그들을 파송할 때입니다.

1장 8절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도들은 이 시점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15장 6절에서 그들에 대해 듣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퍼질 것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또는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그것에 대해 듣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은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특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1장 19절부터 26절. 그들은 이에 대한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12장 25절. 예루살렘에 무엇인가를 전한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행.

물론, 아그리파가 사람들을 처형할 때에도 그들이 그곳에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대략 400마일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고대 교사들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청년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아마도 그는 이 시점에서 십대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13세쯤에는 아직 바르 미츠바가 없었지만 13세쯤 또는 아마도 소년이 사춘기에 들어간 직후에 그는 유대인 집단과 지중해 세계의 많은 곳에서 청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로마에서는 15, 16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마크는 이 시점, 어딘가에서 10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단체로 여행하는 것이 더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몇몇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매우 경건한 랍비들은 여행할 때 토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여행하면서 성경에 관해, 그리고 그들 자신의 삶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아마도 누가는 바울이 그에게 말한 것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얻었을 수도 있고, 은혜에 관한 비유 등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3장 1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의 지도자들 곧 감독자들 중에 있습니다.

이곳의 감독자들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으로 온 것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이 시점에는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어쩌면 초기 선지자들 중 일부가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언적으로나 가르치거나 둘 다로 주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그중 일부가 더 강한지, 일부는 다른 것이 더 강한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시므온과 므나엔.

Menaen은 Menachem의 그리스 형태입니다. 유대인 이름이에요. 시므온과 므나엔은 둘 다 유대인 이름이지만 시므온의 성은 니제르입니다.

그것은 존경할만한 로마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니게르 시므온만이 아니라 니게르라는 시므온입니다.

그러니까 별명이군요. 그리고 라틴어로 별명으로 쓰일 때 니제르(Niger)는 흑인을 의미했다. 아마도 그것은 어둠의 시므온과 같을 것입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개종자의 후손인 북아프리카 개종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유대인이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보면 그는 아마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더 남쪽에서 온 개종자들에게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피부색이 어두워요. 루키아스. 사린에는 유대인 인구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사린의 4분의 1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린의 루키아스는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다. 루키아스는 일반적으로 이방인 이름이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루키아스의 민족이 무엇인지는 실제로 알려주지 않지만 최소한 지리적 다양성은 볼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안티오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구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리더십 팀이 있었습니다. 리더십 팀은 비록 그들이 다른 지역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조상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전에 다른 배경을 가졌을지라도 민족적으로는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토라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글썄요, 마난은 헤롯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가 헤롯과 함께 자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같은 유모를 공유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함께 자란 노예, 특히 상속인의 유모의 자녀였던 노예는 나중에 해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노예 소유자와의 관계 때문에 노예였을 때에도 강력한 힘을 유지했습니다. 내 말은, 당신이 카이사르의 노예라면 카이사르의 노예들도 있었고, 특히 로마 원로원 의원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휘두르던 카이사르의 자유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메리카 대륙의 노예 제도와 세계 여러 지역의 다른 많은 종류의 노예 제도에 대해 생각할 때와는 매우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그는 해방된 노예였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년들도 궁정에서 왕자들과 함께 자랄 수 있었고 그들 역시 명성을 얻었습니다. 안티파스는 이 이야기가 나오기 10년 전에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실제로 그에게 일어난 일은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그의 동생 헤롯 아그립바 1세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 남편 헤롯에게 말하였으니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내 동생은 방금 여기에 와서 왕으로 오는데, 당신은 대대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황제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청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에서 일이 진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황제에게 청원을 했고 황제는 '내가 시작하지 않는 한 누구도 왕이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헤롯 안티파스를 추방했고 헤로디아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점에서 권력의 위치를 잃었습니다.

따라서 Menaen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정치적 연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존경받고 아마도 교육을 받은 배경에서 왔으며 헤롯 안티파스에 관한 자료에 대한 누가의 출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헤롯 안티파스에 관한 특별한 자료를 얻습니다. 특히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이 그렇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헤롯의 청지기 호세아의 아내인 호세아의 아내 요안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와는 사내에서 몇 차례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는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운 바울에게서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루크는 이에 대한 내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과 3절. 지도자들이 함께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일반적으로 애도나 회개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계시를 구하려고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한 번은, 몇 년에 걸쳐, 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매주 하루만 금식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결코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찾고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으로 금식해야 한다는 걱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양한 기도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단지 나는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은 내 말을 들으시고 나는 나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기도와 함께 금식하고 있으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은 예언적 연설이나 선지자들과 가장 자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기서 영은 예언의 영의 기능을 합니다. 지도자들은 선지자이자 교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마도 예언된 것 중 하나는 아마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방식일 것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은 이미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이미 들었던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방금 아이디어를 얻었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글썄,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확인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느꼈던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실 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가끔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이것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내 말은, 그들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이곳 기존의 성장하는 국제 교회에서 활발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른 곳에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직접 파견되고 있습니다.

보낸다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초기 임무를 수행할 때 한 가지 방법으로 요금을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키프로스로 향합니다.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키프로스 총독은 사자나 전령이 둘씩 여행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더 안전합니다.

토라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행할 때 함께 공부하거나 여행할 때 함께 토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동료들을 갖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걷고

있는 일이 전부이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면 좀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도로는 낮에 여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좋았고 일반적으로 안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곳에서 밤에 강도가 왔는데 불행하게도 밤에 차가 고장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하던 나이지리아 친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겠습니다. 하지만 나가서 우리 뒤편에 조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뒤에서 누가 우리를 때리지 않도록 하세요." 차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인 바투리(Baturi)가 이런 상황에서 뭔가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나의 밝은 피부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반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유용하다는 것이 좋았고 우리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도시에 도착하지 않았고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일반적으로 여행하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여행은 세계의 이 지역에서 그 어느 때보다 쉬웠고, 이 지역의 현대 시대가 가까워질 때까지 그 어느 때보다 더 쉬웠습니다. 13:4 그들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 셀루기아로 갔습니다. 셀루기아는 서쪽으로 약 15마일(24km) 떨어져 있었습니다.

해안으로 나가는 오론텔스강도 있었지만 길을 택할 수 있었다. 셀레우키아 자체는 항구로서 부유한 상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요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쪽에 절벽 등이 있어서 잡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키프로스는 그들이 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행 4:36). 그리고 셀루기아에서 바다로 9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음, 13:5에서 그들은 살라미스에 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키프로스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왔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살라미스는 인구가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대규모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아마도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토라에 능숙한 방문 교사는 자연스럽게 지역 회당에서 설교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내 말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방금 도착했지만 방문객이 있을 때 살라미스에는 많은 방문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객이 있을 때 토라에 능숙하다면 여기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출신이었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들이 가말리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면 적어도 그가 예루살렘에서 유능한 교사 밑에서 공부했다는 사실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학자들 중 일부는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을 향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실제로 회당에서 설교했다고 말하는 사도행전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우리는 그가 유대 민족에게 다가가려는 비전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던 것과 같이 자기도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직접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39번의 채찍질을 여러 번 당했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회당에서 그런 종류의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확실히 회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회당 공동체를 거부하고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은 그를 보호해 주었을 것이지만 그는 또한 유대인 공동체에서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다섯 번이나 맞은 사실은 그가 계속해서 회당에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곳에서 맞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회당에 드나들었습니다.

따라서 바울 자신의 목격 편지는 그가 실제로 회당에서 설교했음을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지금 이 시점에서 팀의 리더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바나바와 사울이라 불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둘 다 말했을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아마도 더 설득력 있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14장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세기 초에 키프로스 유대인 공동체가 살라미스를 공격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대인 공동체는 말살되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는 그곳에는 대규모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13.6에서는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키프로스 동부에서 서부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새로운 남쪽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기존 북부 도로보다 짧았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회당에서 설교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봉사했던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 간단한 요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전체 사명에 대해 단 한 권의 책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도중에 있는 도시에는 시디움(Sidium), 자수정(Amethyst), 쿠리암(Curiam)이 포함됩니다.

나는 실제로 이것을 그리스어로 발음하는 방식으로 발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발음했던 방식대로 발음하지 않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New Paphos입니다.

파포스는 키프로스의 지방 수도였습니다. 키프로스 북쪽과 서쪽에 있는 그리스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무역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뉴 파포스에는 없었어요. 그곳은 남동쪽으로 약 7마일(11킬로미터) 떨어진 올드 파포스(Old Paphos)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곳은 주로 이교도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총독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키프로스의 뉴 파포스(New Paphos) 지역에서 발굴된 궁전이 있습니다.

궁전은 총독의 궁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왔던 그 방이 어떤 모습인지 실제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매우 중요한 의자가 있었던 애프스(apse)가 있었는데, 아마도 총독이 법령과 판결 등을 내리기 위해 앉았던 자리였을 것입니다.

매우 넓은 방. 벽에는 아킬레스건 등에 관한 다양한 신화적 장면이 그려진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매우 이교도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유대인 마술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마술사들은 흔히 로마제국 최고의 마술사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불신을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숨겨진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마술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종종 철학자들을 궁정에 첨부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철학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점성가들을 데려갔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될 벨릭스는 유대의 로마 총독으로서 키프로스에서 온 유대 마술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로부터 수십 년 후에도, 심지어 십 년 후에도 키프로스 출신의 유대인 마술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르기오 파울로(Sergius Paulus)는 로마 시민이었지만 실제로 동방에 살았던 1세대 로마 시민이자 원로원 의원 계급이기도 했습니다. Sergius Paulus의 가족은 소아시아 내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으로 성장했지만 동양의 일부 사상에도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는 유대인 마술사인 누군가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인이나 페르시아인, 페르시아의 마법사, 인도의 현명한 사람이 당신의 궁정에 있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고대 지혜와 고대 신비로 유명했으며, 특히 로마 제국 서부 지역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 때때로 이국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궁정에 유대 마술사를 두었습니다, 13:7 및 13:8.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는 분명히 45년부터, 확실히 45년과 46년에 키프로스의 총독이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누가는 해당 공무원의 구체적인 현지 직함을 수정했습니다. 키프로스에서는 이 기간에 총영사였을 것입니다. 세르시오 파울루스, 이 기간에 우리는 그의 이름을 키프로스 총독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키프로스 총독의 약 5분의 1의 이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우리에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 수 있는 확률은 20%,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 총독들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것이 세르시오 파울루스의 경력에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족이 소아시아 내륙 출신이었기 때문에 인근 키프로스의 총독이었을 것이라는 점도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그의 경력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것들과 그의 가족이 상원 의원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것들과 일치합니다. 13.9,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

그런데 왜 여기에 그의 이름을 소개합니까? 사도행전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긴장감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아, 지금쯤이면 그들은 '아, 이 사람은 Paul임에 틀림없어'라는 걸 알아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초기에는 그들은 그것을 알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개종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그들은 어쨌든 그것을 알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 언급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트리아 노미나(tria nomina)와 로마 코그노멘(바울)이라는 세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그노멘(cognomen)이었습니다. Paulus는 라틴어로 작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아마도 로마 시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거의 모두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 부모는 그들에게 로마 이름을 주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쨌든 그들은 자녀에게 로마 이름을 주지만 우리는 Paulus가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모릅니다. 평소라면 예루살렘이나 그런 곳에서는 그런 이름을 갖는 게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사울이 원래 다소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칭호는 일반적으로 의미하며, 로마 칭호인 바울은 일반적으로 그가 시민임을 의미합니다. 그의 로마 이름은 그의 유대인 이름과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비슷하게 들리거나 때로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경우에는 비슷한 소리입니다.

아람어는 샤울, 헬라어는 사울, 라틴어는 파울루스입니다. 그건 그렇고, 사울루스는 아마도 그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의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베냐민 사람의 훌륭한 이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이름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뜻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특히 그가 로마 환경에 있을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제 그는 로마식 환경에 있으므로 로마식 이름으로 전환되고 Paulus가 Sergius Paulus와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연결이 됩니다. 13장 10절과 11절에서 유대인 마술사 엘마스 바르게시스는 바나바와 사울,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를 반대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은 바울이 주도하고 그 다음은 보통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게 되었고 바울은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는 당신이 한 시즌 동안 장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썄, Paul은 그 일이 그에게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소경이었으며 바울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소경을 떠났습니다. 비유적이거나 영적인 맹목과 육체적 맹목에 대한 연극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고, 그리스의 극작가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그는 당신이 한 시즌 동안 눈이 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마귀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글썄, 그것도 아이러니한데, 그 사람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예수였기 때문이다. 예수는 다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실제로 예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정말 악마의 자식이네요. 그리고 그는 그의 교훈을 배우기 위해 한 시즌 동안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권력 만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힘은 신의 힘이 훨씬 더 큼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권력의 만남에 관해 몇 가지 논평을 하려고 합니다. 내 처남인 Emmanuel Musunga는 브라자빌 대학교의 화학 교수입니다.

그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프랑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프랑스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Emmanuel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매우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는 과학자입니다. 그는 과학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Emmanuel은 또한 그의 교회인 콩고 복음주의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몇몇 학생들에게 일어난 일을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함께 붙어 다니는 세 소년이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은 매우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에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곧바로 세 번째 아이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 번째 사람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셋은 서로 동의했고, 우리가 초자연적인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우리 그룹 외부의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주문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에서 이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우리의 피를 일부 채취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우리 피를 조금만 가져가면 우리 각자가 초자연적인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부 장관이 되거나 무엇이든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아이는 같은 남자가 와서 같은 칼로 자신을 찔렀다는 악몽을 꾸 뒤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병이 들었고 몇 달 후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던 날 밤, 둘째도 같은 악몽을 꾸었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던 날 밤, 세 번째 아이도 같은 악몽을 꾸고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처남과 다른 주일학교 교사들이 함께 뭉쳐서 9일 동안 낮에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그를 이 일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자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엠마누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소년은 이제 청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합니다. 우리 가족과 나는 방금 서 있던 자리에서 저주를 받는 상황에서 나무가 뿌리에서 부러지는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욥기 1장을 읽다가 '아, 사탄은 가정과 그와 비슷한 것들을 무너뜨릴 힘이 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즐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좋은

친구이자 이전에 가르쳤던 신학교의 동료였던 남아프리카 출신의 인도 침례교인 로드니 라그완(Rodney Ragwan) 박사가 나에게 그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들었고, 내가 기적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이런 종류의 부록을 작성하고 있을 때 로드니는 나를 대신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 목격자 중 한 명. 그의 할아버지는 더반의 인도 침례교인이었는데 시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내 영혼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영이 오늘 밤 자정쯤에 너희를 방문할 예정인데, 너희는 내 영이 너희가 가진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밤 11시 45분쯤까지 온 가족이 기도와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약 20분 동안 집 주변에서 엄청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드니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기억했습니다. 이런 게 기억에 남을 것 같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다음날 시장에서 그 남자는 로드니의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영혼이 들어갈 수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많은 영혼 수행자들이 권력 만남을 통해 개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필리핀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저는 두 곳 모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앞서 언급한 인도네시아의 탄디 란다(Tandi Randa)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던 마법 공격으로부터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가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마술사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마법 물품을 불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때때로 사람들이 전통적인 약초학자나 마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반드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저주를 이용해 사람을 죽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건강하게 남아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20:11에는 인도네시아 산악 지역에서 열린 부흥회 중에 개종한 주술사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한 배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3장 13절부터 1426년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Via Augusta를 따라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고속도로(Augustus Highway)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아우구스투스 고속도로(Augustus Highway)를 뜻하는 Via Sebast였습니다. 이 건물은 이보다 약 반세기 전에 건설되었는데, 부분적으로는 로마가 군대가 아시아 내륙에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13장과 13절에 따르면, 그들은 바보에서 소아시아의 남쪽 해안까지 직접 또는 거의 북쪽으로 향해하면서 아마도 버가의 주요 항구였던 아탈리아에 상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도로로 여행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강은 어느 정도 항해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에서 도로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 둘 이상이 있다면 그들이 도로로 여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북쪽으로 10마일(16km) 떨어진 페르가(Perga)에서 육로로 여행했습니다. 버가는 이 강의 항해 가능한 물에서 5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팜필리아에 있는 버가(Perga)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팜필리아는 이 시기에 팜필리아 리시아(Pamphylia Lysia) 지역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그 지역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 기간 동안인 43년부터 68년경까지 Pamphylia Lysia의 일부였습니다.

버가는 해안에 있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10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글썄, 그런 다음 그들은 시작하고 아마도 Augustus 고속도로 인 Via Sebast를 따라 북동쪽으로 여행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택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몇 개 있었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여행했던 장소에 대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왜 내부로 여행을 갔을까요? 여기 버가에는 아마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누가는 1314년에 피시디아 근처의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시디아 근처의 안티오크는 우리가 이야기한 오론테스 근처의 초기 시리아 안티오크와 혼동하지 말자. 페르가나 해안을 따라 있는 다른 도시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니다. 그것이 로마 식민지였던 이유는 로마가 식민지를 건설할 때 참전 용사들을 도중에 배치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전 세대에서 별로 안전하지 않았던 소아시아 내부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살았던 참전 용사들의 후손인 식민지 주민과 식민지 주민 외에 다른 사람들도 5,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해안 지역에 비해 인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특히 메인(Main)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가장 큰 사원은 황제와 카이사르를 기리기 위해 최근에 지어진 사원이었습니다.

해안 도시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고학을 통해 세르기 폴리(Sergii Poli) 가문이 이 지역, 특히 이곳의 북동쪽에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신자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추천서를 그들에게 제공했다면, 그의 신앙이 영구적이든 아니든, 그가 나중에 원로원 의원이 되어 나중에 로마에서 봉사했다면 우리는 믿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세대에 걸쳐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카이사르를 존경하는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은 이방 신전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았지만 실제로는 신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왕이 자신에게

기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르기오 파울루스는 당시 적어도 신자였으므로 그가 추천서를 제공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내부로 가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이제 그들은 안식일에도 그곳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공개 모임이 정상적으로 열리는 유일한 시간인 안식일과 축제일입니다.

때때로 유대인 공동체가 충분히 크고 사람들이 회당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학교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자주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3장 15절에서 사용된 성경 읽기에서 바울은 아마도 그들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성경 읽기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토라(Torah)를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판독값이 아직 수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3년 주기가 있습니다. 토라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특히 유대와 갈릴리 밖의 디아스포라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독서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당 설교는 일반적으로 읽은 본문에 대한 강론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처음부터 설교를 시작하고 다음 설교가 끝날 때까지 선지자들을 거쳐 달려갑니다. 회당장은 그에게 말씀을 달라고 청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당연할 것이다. 여기 유대에서 실제로 방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말하는 사람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회당장은 흔히 명예 직위였지만 회당의 최고 관리들을 가리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비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생각되었던 계급 구분 측면에서 특히 명예롭고 존경할 만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직위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종종 회당에도 기부자들이었습니다. 글썬요, 1316년 디아스포라에서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에 관해 우리가 보는 것과는 반대로 디아스포라에서는 설교자가 정상적으로 서서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신 후 앉아서 설명하시지만, 유대와 갈릴리 이외의 디아스포라에서는 설교자가 보통 서서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13장 16절부터 43절까지의 성경 해설이 있는데, 이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는 방식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다양한 청중에게 적응한 것처럼 연설에서도 다양한 청중에게 적응했는데, 이는 고대에 훌륭한 수사학 원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 다음번에 우리가 다룰 내용은 실제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려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14회기, 사도행전 12장과 13장입니다.